

비극성의 상실과 역사 왜곡

- 겐로쿠 사건과 『가나데혼 주신구라』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

이성민*
fresh@kbs.co.kr

<目次>

- | | |
|-----------------|----------------------------|
| 1. 序 論 | 2.3 『주신구라』와 비극성의 상실 |
| 2. 本 論 | 2.4 『주신구라』와 근대 국민교육 |
| 2.1 비극의 정의 | 2.5 근대 국민교육과 겐로쿠 사건의 인식 전환 |
| 2.2 겐로쿠 사건과 비극성 | 3. 結 論 |

主題語: 近代(Modern times), 國民教育(National education), 元祿事件(The incident Genroku), 仮名手本忠臣(Ganadehon Chushingura), 歴史歪曲(History distortions)

1. 序 論

서구 문학의 관점에서 보면, 『가나데혼 주신구라』(仮名手本忠臣蔵, 이하 『주신구라』)¹⁾는 비극이어야 한다. 『주신구라』의 원형인 겐로쿠 사건(元祿事件) 자체가 비극이기 때문이다²⁾. 겐로쿠 사건은 주군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원수를 갚기 위해 47명의 무사들이 집단 복수를 벌여, 막부로부터 전원 할복 명령을 받은 사건이다.

그러나 『주신구라』는 복수의 완결로 11단 대서사극을 마무리한다. 복수에 성공한 무사들이 막부로부터 전원 할복 명령을 받고, 할복을 수행하는 과정은 생략되어 있다. 『주신구라』의 분본(粉本, 밑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 지카마쓰 문자에몬(近松門左衛門)의 『고반타이헤이키(基盤太平記)』³⁾가 할복장면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⁴⁾, 『주신구라』가 복수의 완결까

* 백석예술대학교 외국어학부 겸임교수

1) 1748년 8월 14일, 오사카(大坂) 다케모토(竹本) 좌에서 초연한 겐로쿠 사건 관련 연극으로, 다케다 이즈모(竹田出運), 미요시 쇼라쿠(三好松洛), 나미키 소스케(並木宗輔) 합작이다. 처음에는 인교조루리(人形浄瑠璃)로 발표되었으나, 인기를 거둬하면서 가부키(歌舞伎)로도 상연되었다. 겐로쿠주신구라노카이(元祿忠臣蔵の会)(1999)『元祿忠臣蔵データファイル』新人物往來社, p.230

2) 서구의 비극은 인간이 자신의 동료, 혹은 피할 수 없는 운명과의 갈등의 결과로 생기는 고통과 불행을 취급한다. 따라서 이러한 개념을 근거로 살펴보면, 겐로쿠 사건은 비극이라고 할 수 있다.

지만 묘사하는 것은 비극을 비극처럼 느끼지 않게 만드는 효과를 초래한다.

『주신구라』에서 할복장면이 생략된 것은 작가들의 의도성 때문이다. 작가들은 11단에 이르는 대서사극인 『주신구라』에 도주한 1명⁵⁾을 제외한 46명의 무사들의 할복장면을 삽입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느꼈던 것이다. 46명의 무사들의 할복장면이 삽입될 경우, 곧바로 『주신구라』가 예시하는 상황이 바로 겐로쿠 사건임을 암시할 가능성이 높았다. 그래서 작가들은 『주신구라』에서 무사들의 할복장면을 생략하고, 서사를 마친 것이다⁶⁾.

그런데 할복 장면의 생략은 『주신구라』의 원형이 된 겐로쿠 사건을 이해하는데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 복수의 완결로 11단 대서사극이 종결되면서, 『주신구라』는 억울한 죽음을 당한 주군의 원수를 양갓음하는 복수극이 되고 만 것이다. 『주신구라』가 복수극인 것은 사실이지만, 역사적 사실로서의 겐로쿠 사건은 막부의 판결에 반발한 47명의 무사들이 불법 복수를 저질러 다시 막부에 의해 집단 할복을 명받은 불법행위였던 것이다⁷⁾. 무사들이 집단 할복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점은 대수롭지 않은 일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복수가 불법 행위냐, 합법 행위냐는 점에 대한 오해를 생기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한 문예작품이 반드시 역사적 결말을 극적 결말로 연결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문예작품은 작가의 의도에 따라, 실제 사실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제시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작가가 창조할 수 있는 예술적 허구의 세계가 가진 특징이다.

하지만 『주신구라』의 비극성 상실은 여느 일본 문예 작품의 주제 변용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왜냐하면 바로 『주신구라』가 지닌 특수성 때문이다. 『주신구라』는 일본인이라면 누구

3) 『고반타이헤이키』는 겐로쿠 사건을 각색한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최초의 작품으로, 난교조루리로 초연되었다. 1706년 6월 1일 오사카에서, 다케모토 좌에 의해 초연되었다. 이 작품에 실제 인물의 이름을 바꾼 오보시 유라노스케(大星由良助)와 데라오카 헤이에몬(寺岡平右衛門) 등의 이름이 사용되었다. 이 작품은 훗날 『주신구라』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겐로쿠주신구라노카이(元祿忠臣藏の会), 전게서, p.228

4) 미도리카와 가오루(緑川亨)(1983) 『日本古典文學大事典 卷2』岩波書店, p.655

5) 47인의 무사 가운데 한 명인 데라사카 기치에몬 노부유키(寺坂吉右衛門信士)는 할복하지 않는다. 거사에 참여한 직후, 무사 일행이 센가쿠지(泉岳寺)로 이동할 때부터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데라사카 기치에몬 노부유키가 할복에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설이 있다. 도망설, 밀명설 등이 있으나, 모두 명확하지 않다. 데라사카 기치에몬 노부유키는 1747년 83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그리고 이듬해 『주신구라』가 상연되었다. 이성민(2012) 『가나데혼 주신구라의 비극성』 한국학술정보, p.170

6) 다케다 이즈모(竹田出雲), 미요시 소라쿠(三好松洛), 나미키 소스케(並木宗輔) 등의 다케모토(竹本) 좌의 3인 작가들은 이전에 나온 작품들을 종합해서, 막부의 검열을 통과할 수 있는 장점들만을 골라서 작품을 만들었다.

7) 겐로쿠 사건이 발생하고 2, 30년이 지날 때까지, 47인 무사들의 복수에 대한 찬반양론이 거셌다. 무로 규소(室鳩巢), 하야시 노부야쓰(林信篤) 등은 무사들을 칭송한 학자들이었고, 사토 나오키타(佐藤直方), 오구 소라이(荻生徂徠), 다자이 순다이(太宰春台)는 무사들의 불법성을 지탄했다. 나카에 가쓰미(中江 克己)(1999) 『忠臣藏と元祿時代』中公文庫, pp.182-187

나 알고 있는 일본의 국민 문예작품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작품이다. 『주신구라』가 발표된 이후, 소위 주신구라모노(忠臣藏物)가 거의 매년 거르지 않고 연극, 요미혼, 소설, 영화, 드라마로 소개되고 있기 때문이다⁸⁾.

따라서 본 논문은 『주신구라』에서 집단 할복 장면의 생략을 서구의 문예이론인 비극론에 의해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서구의 문예이론 가운데, 비극 이론은 희극 이론과 함께 서구 문예사는 물론 사상사 발전에 있어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비극 이론은 현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성립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친 서구인들의 결정적 판단 가치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서구의 비극 이론이 절대적 판단 기준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일본의 국민문학 『주신구라』가 지닌 문예적 특징을 서구인들이 수 천 년에 걸쳐 이룩한 비극 이론에 맞춰 분석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일본 근대 국사 교과서와 현대 국사 교과서에 수록된 겐로쿠 사건에 대한 분석 역시 전례가 없는 일이어서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선행 연구가 없는 새로운 시도인지라 두려움도 없지 않지만, 이제 『주신구라』는 서구의 보편적 판단 체계로 재검토하는 일도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본 논문에서 사용할 텍스트와 인용 문구의 본문 페이지는 『浄瑠璃集 新編 日本古典文學全集77』(小學館, 2002)를 기초로 하고, 본문의 해석은 최관의 『주신구라』(민음사, 2001)를 따랐다.

2. 本 論

2.1 비극의 정의

서구 사회에서 비극(tragedy)의 개념은 그리스 비극(Greek tragedy)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태도이다⁹⁾. 브라이언 비커스(Brian Bickers)는 “그리스 비극은 아버지와 아들, 남편과 아내, 통치자와 애원자의 인간관계를 취급 한다”¹⁰⁾고 전제한다. 인간이 모든

8) 『元禄忠臣藏 データファイル』에는 겐로쿠 사건 발생 이후 지금까지 발표된 주요 작품들을 망라하고 있다. 이 책에는 텔레비전 드라마 15편(pp.170-171), 영화 43편(pp.172-173), 연극 171편(pp.228-242), 소설 86편(pp.174-176)과 『주신구라』 고기록 목록(pp.178-209), 『주신구라』 참고도서 목록(pp.210-227)이 소개되고 있다. 물론 이 책에도 누락된 작품은 많다. 또한 연극의 장기 공연과 텔레비전 대하드라마의 경우는 보통 상연 기간이 수개월에서 1년을 오르내리므로, 실제 공연 기간은 작품의 발표 건수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이다. 그리고 이와 함께, 라디오 드라마와 텔레비전 단막극, 쇼 프로그램의 코너까지 포함한다면, 사건 발생 300년 동안 거의 매년 일본에서는 다양한 장르로 『주신구라』가 소개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元禄忠臣藏の会(1999), 전거서, pp.170-227

9) P.E. Easterling(1997)『Greek Tragedy』 Cambridge University Press, p.3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등장한 신화시대 이후, 모든 비극은 인간과 인간의 갈등에서 초래한다는 뜻이다. 비커스는 비극적 주인공이 파멸의 과정에서 느끼는 감정을 ‘고통’(suffering)으로, 관객들에게 생기는 감정을 ‘동정’(sympathy)¹¹⁾이라고 설명했다.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는 비극을, 비극의 주인공이 자신의 판단착오로 인해 발생한 ‘비극적 결함’(tragic flaw)으로 겪게 되는 고난과 고통으로 풀이했다¹²⁾. 비극의 주인공은 자기가 저지른 실수나, 결함으로 인해 자기가 맞이하는 비극의 원인 제공자가 된다는 말이다. 주인공이 비극을 맞이하는 비극적 결함의 조건은 “자기과신(hybris), 이길 수 없는 상대(nemesis), 그리고 정의(dike)”¹³⁾이다. 칼 재스퍼(Karl Jasper)는 “죄에 대한 보상은 파멸(destruction)이다”¹⁴⁾라고 비극의 결과를 설명했다.

겐로쿠 사건의 무사들은 무사로서의 도리를 지킨다는 정의를 바탕으로(dike)으로, 자신들 마음 속에 생긴(hybris), 주군의 원수에 대한 피할 수 없는(nemesis) 복수의 운명을 완수하며, 전원 할복이라는 고통과 불행(destruction)을 맞이한다. 이때 관객이나, 독자들은 비극적 주인공이 된 무사들에 대해서 ‘연민’을 느끼는 동시에, 그들이 맞이한 죽음에 대해서는 ‘공포’의 감정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양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한 비극적 주인공이 맞이하는 고통과 불행에 대해 느끼는 “비극적 연민과 공포(tragic pity and fear)”¹⁵⁾를 제공하는 비극과 다를 바가 없다.

본 논문에서는 서구 문예이론 가운데 하나인 비극론을 겐로쿠 사건과 『주신구라』에 적용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일본 문학에서, 서구의 문예 이론에 적용하는 연구는 흔치 않았다. 그것은 문화와 문학이 가지고 있는 상대성 때문이었다. 일본인들은 겐로쿠 사건이나, 『주신구라』의 세계는 일본인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다는 심원한 세계라고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겐로쿠 사건이나, 『주신구라』에 서구의 문예이론을 적용해서 비교 분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실제로 일본 내부에서는 겐로쿠 사건이나, 『주신구라』를 비극과 연결시킨 연구는 없다¹⁶⁾.

10) Brian Vickers(1973)『Towards Greek Tragedy』Longman Group Limited, p.3

11) Brian Vickers, 상계서, p.52

12) Robert Bechtold Heilman『Tragedy and Melodrama : Speculations on Generic Form』, Robert W. Corrigan (1981)『Tragedy Vision and Form』Happer&Row, p.206

13) Brian Vickers, 전계서, p.23

14) Karl Jaspers『Basic characteristics of the Tragic, Robert』, W. Corrigan(1981), 전계서, p.70

15) Susanne Langer『The Tragic Rhythm, Robert』, W. Corrigan(1981), 상계서, p.120

16) 일본 국회도서관이나, 국문학연구자료관을 검색하고, 결과 내 검색으로 겐로쿠 사건이나, 『주신구라』를 추가 검색하면, 유일하게『二つの忠臣蔵』이라는 제목의 하마다 준코(濱田 侑子)의 책이 발견된다. 그러나 실제로 이 책은 다케모토 좌의『仮名手本忠臣蔵』과 역사적 사실에 기초로 한『元禄忠臣蔵』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저자가 수필 형태로 피력한 것이다. 濱田 侑子(1986)『二つの忠臣蔵』未知谷, pp.65-110

그것은 겐로쿠 사건이나, 『주신구라』가 비극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인 것 같다. 복수의 완성하고, 의로운 죽음을 선택했으므로, 무사들의 할복은 결코 비극이 될 수 없다는 인식이 팽배한 것 같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을 강화한 것은 겐로쿠 사건을 일본 국민교육에 수록한 근대로부터 시작되었다. 겐로쿠 사건이 발생한 18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47인 무사들에 대한 숭배 분위기와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아쉬움이 사회 일반의 현상이었다. 그렇지만 근대 이후, 특별히 20세기에 접어들면서 겐로쿠 사건은 식민주의를 지향하는 일본의 제국주의의 중요한 교육 도구로 활용되었다. 그리고 지난 100여 년간 겐로쿠 사건과 『주신구라』는 일본 사회를 지탱하는 구심점 역할을 해왔다.

따라서 겐로쿠 사건과 『주신구라』는 비극과 연관 지어 생각할 수 없는 사안이 되었다. 주군에 대한 의리를 지키기 위해, 인간적 갈등을 극복하고 복수를 완성한 무사들이 맞이한 할복은 비극적 종말이 아니라, 의로운 죽음이었기 때문이다. 무사들의 죽음을 비극적 종말로 처리하면, 일본의 국민교육은 모순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이런 모순을 피하기 위해서, 근대 일본의 국민교육을 위한 교과서에는 겐로쿠 사건이나, 『주신구라』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대신, 겐로쿠 사건을 야기한 주인공에 대한 서술을 통해서, 주군에 대한 의리와 충절을 지킨 무사의 기상을 소개하고 있다.

2.2 겐로쿠 사건과 비극성

겐로쿠 사건에 관한 서술은 근대 일본의 『심상소학 국사』에서 시작되어, 현대 일본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도 실려 있다. 사적 복수에 관한 내용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불법 행위로 규정되어 있다. 기습이라는 복수의 방식으로 인해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당시 정권인 막부의 판결에 반발한 것이었으므로 반체제적 성격이 강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적 복수에 관한 내용은 일본의 국민교육 내용으로 수록되기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근대 교과서에서부터 시작된 겐로쿠 사건에 관한 내용은 현대

일본 문학사에서, 겐로쿠 사건이나, 『假名手本忠臣藏』를 비극적 관점에서 비평한 연구는 없다. 참고로 일본 국회도서관이나, 국문학자료관에서 ‘비극’을 검색하면, 무료 2만 건이 넘는 연구논문이나, 장서가 검색된다. 비극의 나라라고 이야기 할 수 있을 만큼, 비극에 대한 연구가 잘 이루어진 나라가 바로 일본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 겐로쿠 사건이나, 『주신구라』와 연관된 내용이 없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일본에서 겐로쿠 사건과 연구가 이루어질 수 없는 이유는 겐로쿠 사건과 『주신구라』를 비극으로 교육받지 않은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일본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도 여전히 수록되어 있다. 일부이긴 하지만, 이런 내용이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 실려 있다는 사실은 일본의 국민교육의 지향점이 무엇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다시 한 번 정의하지만, 겐로쿠 사건은 주군의 죽음을 역울하다고 여긴 무사 47명이 주군의 원수를 상대로 벌인 복수극이다. 다음은 일본의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 가운데 하나인 『최신 일본사(最新日本史)』에 기록된 겐로쿠 사건의 정의이다.

겐로쿠 14년(1701) 3월, 칙사의 향응 역인 아사노 다쿠미노카미 나가노리(淺野内近頭長矩)가 에도 성내에서 예전(禮典) 지도(指導) 역의 기라 고즈케노스케 요시나카(吉良上野介義央)를 칼로 베어, 나가노리는 당일 할복을 명받았다. 최고위 가신인 오이시 요시오(大石良雄) 이하의 46인 무사는 낭인이 되었고, 고심하던 끝에 이듬해 12월 복수를 달성하였다.

당시, 사회에 금전숭배와 향락 분위기가 넘쳐흘러, 이념보다는 생활에 급급해서, 무사의 기풍은 더욱더 쇠약해지고 있었다. 아코 무사의 사건이 일어나자, 사람들은 무사에 대한 공감의 모아졌다. 바쿠후는 처분에 고심해서, 결국, 법적으로는 죄인이지만, 무사의 면목을 세워, 무사들에 할복이라는 명예로운 처분을 내렸다. 이 행위를 부인하는 식자도 있었지만, 대학두(大學頭) 하야시 노부야쓰(林信篤)는, 세도인심에 끼친 영향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아사미 케이사이(淺見綱斎)는 주인을 바꾸는 이동 봉공이 보통이 된 무가사회에서 주군의 복수를 수행한 것은 무사의 모범이라고 말하고, 무로 규소(室鳩巢)도 ‘아코의인록(赤穂義人錄)’을 지어서 깊은 동정을 기울였다.¹⁷⁾

본 논문의 연구 목표는 겐로쿠 사건의 비극성에 관한 내용이다. 따라서 위에 언급된 내용 가운데, 무사들의 행위를 칭송하는 일방의 태도만 적혀 있다든지, 일본 역사 교육에 대한 의구심이 들게 한다는 내용은 언급하지 않으려 한다. 근본적으로 겐로쿠 사건은 막부의 판결에 반발해서 사적 복수를 벌인 무사들의 집단 테러 행위이고, 이것은 어떠한 논리로도 행위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겐로쿠 사건의 비극성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의 관점을 제한하려 한다.

우선, 겐로쿠 사건을 살펴보면, 겐로쿠 사건은 비극이다. 겐로쿠 사건을 일으킨 47인의 무사들의 복수 행위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언급한 비극의 개념을 충족시키기 때문이다. 47인의 무사들은 주군 아사노의 죽음이 역울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hybris), 원수 기라에게 복수를 하겠다고 결심했다. 무사들은 그러한 복수가 무사로서의 도리를 지키는 것이라는 생각(dike)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원수 기라에 대한 피할 수 없는 복수의 운명(nemesis)을 완수하며, 전원 할복이라는 고통과 불행(destruction)을 맞이한다.

주군 아사노의 할복 직후, 아코 번은 폐번이 되었다. 막부는 곧바로 아코 성을 대평정했고,

17) 고보리 게이치로(小堀桂一郎), 무라마쓰 다케시(村松剛)외 10명(1994)『最新日本史』國書刊行會, p.129

무시들은 혼란스러운 상황을 맞이했다. 성내에서 막부와 대항해 항전을 하자는 주장도 있었고, 할복한 주군의 뒤를 이어 할복하자는 이야기도 있었다. 그리고 주군의 원수인 기라에게 복수를 하자는 의견까지도 개진되었다. 이러한 감정적 판단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든, 막부가 내린 결정에 반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틀림없었다.

이것은 겐로쿠 사건을 일으킨 47인의 무시들의 판단착오였다. 무시들의 주군 아사노는 아사노대로 판단착오로 인한 비극적 결함으로 비극적 결말을 맞이했기 때문이었다. 주군 아사노는 기라의 자신에 대한 태도가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hybris), 기라를 죽여야겠다고 생각(dike)하고 있었다. 원수 기라를 죽이는 것이 자신의 운명이라고 생각(nemesis)한 아사노는 칼부림을 일으키지만, 기라를 죽이지 못하고 도리어 자신이 막부에 의해 할복 명령을 받는 고통과 불행(destruction)을 맞이한다.

겐로쿠 사건은 두 번의 판단착오가 돌이킬 수 없는 비극적 결말을 초래한다. 기라의 무시와 따돌림에 대해서 분노를 느낀 아사노가 칼부림을 하겠다고 결심한 것과 주군 아사노의 할복 이후 주군의 원수 기라에게 원수를 갚겠다고 다짐한 47인 무시들의 복수가 바로 판단착오였다. 이러한 두 번의 판단착오는 고통과 불행을 불러오는 비극적 결함으로 작용했다. 겐로쿠 사건과 관련해서, 칼부림을 한 주군 아사노와 복수에 나선 무사 47인 가운데 도주한 한 명을 제외한 46명을 포함해서, 모두 47인이 할복으로 목숨을 잃게 된다.

겐로쿠 사건은 예술작품이 아니지만, 세인들에게 비극이 주는 효과를 똑같이 경험하게 만든다. 겐로쿠 사건이 발생하고 막부가 무사들에게 전원 할복 명령을 내리자, 세인들은 ‘연민’을 느끼는 동시에, 그들이 맞이한 죽음에 대해서는 ‘공포’의 감정을 느꼈다. 과연 주군의 원수를 갚는 일이 46명의 무사들에게 목숨을 바칠 정도로 중요한 일인가 하는 의문을 들게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양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한 비극적 주인공이 맞이하는 고통과 불행에 대해 느끼는 “비극적 연민과 공포(tragic pity and fear)”¹⁸⁾를 제공하는 비극과 전혀 다르지 않다.

『주신구라』의 탄생은 역사적 사실 겐로쿠 사건이 주는 “비극적 연민과 공포” 때문이었다. 겐로쿠 사건이 발생한 직후부터, 47년이 지나서 『주신구라』가 상연될 때까지, 일본에서는 ‘복수(仇討)’와 관련된 연극이 무수하게 발표되었다. 46인의 무사들에 대한 막부의 할복 명령이 실행된 지 12일 만인 1702년 2월 16일에 상연된 『아케보노 소가노요우치(曙會我夜討)』를 비롯해서, 『주신구라』가 발표되기 1년 전인 1747년 6월 2일에 상연된 『오야카즈 시주시치혼(大矢數四十七本)』에 이르기까지 무려 23편의 겐로쿠 사건 관련 연극이 발표되었다.

18) Susanne Langer『The Tragic Rhythm, Robert J., W. Corrigan(1981), 상계서, p.120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시기였던 18세기 초반, 겐로쿠 사건은 무사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역설적인 사건이었다. 주군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는 것을 관념적으로 알고 있던 일본인들에게, 겐로쿠 사건은 “비극적 연민과 공포”를 느끼게 만드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겐로쿠 사건이 발생한지 47년이 지난 뒤에 발표된 겐로쿠 사건 관련 연극인 『주신구라』가 제작된 것이나, 흥행에 성공을 하고 300년이 지나도록 인기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은 사건 자체가 제공하는 “비극적 연민과 공포” 때문이었다.

2.3 『주신구라』와 비극성의 상실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서구의 비평가들은 비극이 주는 매력을 비장미(tragic beauty)로 소개했다. 비장미란 자아의 실현 의지가 현실적 여건 때문에 좌절될 때에 나타나는 미의식¹⁹⁾이다. 서구 비극의 주인공들은 범인과 다른 영웅들이다. 따라서 영웅의 좌절은 대중들에게 슬픈 정조를 자극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끌게 된다.

겐로쿠 사건이 주는 “비극적 연민과 공포”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줄곧 세인들에게 강한 매력으로 다가왔다. 세인들은 무사들의 복수와 비극적 결말에 열광했고, 찬사를 보냈다. 이것은 겐로쿠 사건이 비극이라는 말과 같았다. 복수는 실현했지만, 무사들은 할복으로 죽음에 이르렀기 때문이었다. 복수를 완성하는 것은 삶을 위해서였는데, 무사들은 역설적으로 복수를 완성하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비장미이다. 막부의 은혜로 죽음을 면했다면, 무사들은 이내 대중의 너리에서 잊혀 졌을 수도 있다. 무사들이 할복으로 인생을 마감했기 때문에 세인들은 환호했고, 연민의 반응을 보였다.

그렇지만 이러한 세인들에 반응에 긴장하는 쪽은 막부였다. 막부는 제2, 제3의 겐로쿠 사건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막부는 강력한 중앙집권체제와 이를 뒷받침하는 상업 세력의 발달로 인해 직업을 잃은 무사들이 막부의 반발세력이 되지나 않을까 염려했던 것이다.

따라서 겐로쿠 사건 발생 직후부터, 복수와 관련된 연극들과 서적들은 막부로부터 공연과 출판금지를 받았다. 연극 제작자들과 작가들은 겐로쿠 사건의 본질은 유지하면서도, 막부의 검열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래서 시대를 소급하기도 했고, 등장인물의 이름이나, 성격을 바꾸기도 한 것이다. 『주신구라』에서는 무사들이 집단으로 할복하는 장면의 생략은 막부의 검열을 피하기 위한 3인 작가들의 선택이었다.

19) Christian Meier(1988)『The Political Art of Greek Tragedy』Polity Press, p.4

작가들이 할복 장면을 생략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주신구라』의 본본이었던 『고반타이 헤이키(碁盤太平記)』에 있던 할복 장면을 생략한 것은 막부와의 갈등을 피하기 위한 의도였다. 작가들은 겐로쿠 사건 발생 47년이 지난 1748년 『주신구라』 발표 직전까지, 겐로쿠 사건의 사회적 관심을 제지하는 막부를 의식했다. 무사들의 집단 할복 장면을 삽입한다면, 『주신구라』가 겐로쿠 사건을 암시한다는 것은 명확한 일이었다. 작가들은 할복장면을 생략했고, 막부는 다양한 암시를 통해 겐로쿠 사건을 상징하는 『주신구라』의 장기 공연을 묵인했다.

그렇지만 『주신구라』 곳곳에는 오히려 할복 장면을 생략하면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 인물의 성격이 고정화되면서 일어난 일이었다. 예를 들어, 『주신구라』에서 46인의 무사들에게 집단적 비극을 초래하게 하는 인물은 하쿠슈의 영주 엔야 한간(塩冶判官)이다. 실제 인물 아사노를 암시하는 엔야 한간은 선한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반면 엔야 한간을 궁지로 몰아넣는 고노 모로나오(高武藏守)를 색정에 밝은 포악한 인간으로 그려낸다. 겐로쿠 사건의 주인공 아사노와 기라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인물들이었다. 비극은 그런 인물들이 자신의 결함으로 인해 비극적 결말을 맞이하는 것이다.

여자를 밝히는 모로나오가 즉시 말을 건넨다. “엔야님의 부인인 가오요님인가? 아까부터 몹시 기다리느라고 수고하였소. 다다요시공의 부름이요. 좀 더 이쪽으로 가까이.” 하고 둘 사이를 중재하는 듯한 태도를 취한다²⁰⁾.(p.14)

그런데 『주신구라』는 주군을 위해 목숨을 바친 47인의 무사들에 우호적인 태도를 갖다보니, 기라에 해당하는 고노 모로나오를 악한 인물로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고노 모로나오를 상대하며, 집단적 비극을 초래하는 인물인 엔야 한간은 당연히 선한 인물로 그려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인물의 성격 결정으로 인해, 관객들은 기라 고노 모로나오보다는 약자 편에 서 있는 엔야 한간을 심정적으로 응원하게 된다.

대체로 당신처럼 집안에만 있는 자를 가리켜 <우물 안의 봉아>라고 하지. 잘 들어두게. 그 봉어란

20) 内にばかりいる者を。井戸の鯛ぢやと言ふたとへがある。聞いておかしやれ。かの鯛が、わづか三尺か四尺の井の内を。天にも地にもないやうに思うて。ふだん外を見ることがない。ところにかの井戸がねに、釣瓶について上がります。それを川ね放しやろと。何か内にばかりいるやつぢやによつて。よろこんで度を失ひ。橋杭で鼻を打つて。即座にぴりへへへと、死にます。きさまもちやど鯛と同じことハ、とへへ出放題。判官、腹に据いかね。おりや、こなた狂氣めさつたか。イヤ氣がちがうたか、師直シヤこいつ。武士をとらへて氣ちがひとは。出頭第一の高師直、ム、すりや今の悪言は本性よな、くどいく。また本姓なりやどうする。オ、かうする、と抜き討ちに。鳥越文蔵(2002)『浄瑠璃集 新編 日本古典文學全集77』小學館, pp.44-45

높은 불과 3척이나 4척의 우물 안을 세상에서 가장 넓은 곳이라고 생각하여, 평소에 밖을 보는 일이 없었니까 잘난 체만 하지. 그런데 그 우물의 물갈이를 하는 경우에 두레박으로 퍼 올려 강에 풀어주면, 아무래도 집에만 있던 놈이라서 기뻐서 해엄은 치지만 어디로 가면 좋을지 몰라 다리의 말뚝에 코를 부딪치고는, 그 자리에서 파드득, 파드득, 파드득, 파드득, 떨어져 죽어버리지. 너도 마치 그 봉어와 같구나. 하하하하!”

한간은 분노를 참을 수 없다. “이봐 당신 미쳤는가!” 제정신 아닌가, 모로나오!”

“이놈, 무사에게 미쳤다니! 지체 높은 이 고노 모로나오를 향하여!”

“그렇다면 지금의 그 욕설은 제정신으로 한 것인가?”

“말이 많군. 제정신이였다면 어쩔 테냐!”²¹⁾(pp.41-42)

이와 같은 시비가 붙어서, 결국 엔야 한간은 고노 모로나오를 공격하게 된다. 고노 모로나오의 발언은 엔야 한간을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있다. 엔야 한간의 칼부림은 고노 모로나오가 급격하게 충동질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고노 모로나오는 악인으로 그려지고 있다. 반면 엔야 한간은 악한 인물의 농간에 넘어가 구석에 몰린 선한 인물로 묘사된다. 대중들이 엔야 한간을 응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서구 문예사에서, 인물의 성격이 결정된 예술 형태는 비극이 아니라, 멜로드라마라고 설명한다. 악인이 악행을 저지르고, 선인은 악인에게 희생당하는 전형이 『주신구라』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겐로쿠 사건이 가진 “비극적 공포와 연민”을 회색시킨다. 이로 인해서, 관객들은 『주신구라』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해 객관적 태도를 취하지 못하고, 엔야 한간에게는 동정심을, 고노 모로나오에게는 적대감을 갖게 된다.

주군 엔야 한간의 원수를 갚기 위해 복수에 나서는 47인의 무사들에게도 역시 선과 악 가운데 선한 쪽으로 성격이 결정된다. 무사들의 성격이 결정되는 것은 성내의 칼부림과 전혀 관련이 없는 무사들이 주군의 부탁을 받고 악인 고노 모로나오를 처단하기로 결단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엔야 한간은 4단의 할복 장면에서, 가신 오보시 유라노스케(大星由良之助)에게 억울한 죽음에 대한 복수를 당부한다.

“유라노스케! 이 단도²²⁾를 너에게 남기마. 나의 울분을 씻어 다오!” 이렇게 말하고 나서 칼끝으로 목젖을 자르고 피 묻은 칼을 앞으로 던졌다. 그리고 쿵 하고 앞으로 쓰러져 절명하였다.²³⁾ (p.54)

21) ほどもあらさず、塩冶判官。御前へ通行る長廊下、師直呼びかけ、遅し遅し。なんと心得てこざる。今日は正七つ時と。先刻から申し渡したでないか。(p.42)

22) 아사노가 할복을 했을 때, 오이시 요시오는 망군의 유체와 함께 작은 칼을 입관했다. 기쿠치 아키라(菊地明)(2002)『圖解雑學 忠臣蔵』ナツメ社, p.60

23) 由良之助、この九寸五分は汝へ形見。わが鬱憤を晴させよと。切先にて、笛はね切り。血刀投げ出し、

주군 엔야 한간의 유언을 받아들이는 유라노스케는 악인 고노 모로나오의 대척점에 서게 된다. 고노 모로나오가 악인으로 성격이 설정된 까닭에, 오보시 유라노스케는 주군의 복수를 결단하는 순간부터 선인이 된다. 사람을 죽이는 일을 결정하는 것 자체만으로, 유라노스케는 선인이 되고, 나머지 46인의 무사들은 자신들의 성격과 관련 없이 선인이 되는 것이다.

피에 물든 칼끝을 꼼짝 않고 바라보며 주먹을 불끈 쥐고는 원통한 눈물을 주르륵 주르륵 흘렸다. 주군의 최후의 한마디가 오장육부에 스며들어 번져갔다. 생각해보면, 후대에 오보시 유라노스케가 의로운 충신으로서 이름을 알린 복수의 의거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²⁴⁾. (p.54)

고노 모로나오가 악인인지, 선인인지 상관없이, 오보시 유라노스케가 선인이 된 것은 주군 엔야 한간의 원수를 갚기로 결정한 까닭이었다. 고노 모로나오가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범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비윤리적 패륜아도 아니었다. 고노 모로나오가 악인이 된 것은 오보시 유라노스케와 46인의 무사들이 의로운 충신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노 모로나오는 시작부터 악인으로 설정되면서, 47인의 무사들에게 죽어 마땅한 인물이 되었던 것이다.

『주신구라』에서 오보시 유라노스케의 판단착오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주군 엔야 한간의 유언을 받아들이는 부분이다. 『주신구라』가 비극이 되기 위해서는 오보시 유라노스케가 자신의 남은 인생과 주군의 유언 사이에서 갈등하다, 주군의 원수를 갚기로 결정하는 판단착오를 내려야 한다.

그렇지만 주군의 원수를 갚기로 결정된 오보시 유라노스케는 처음부터 주군의 말이라면 거역하지 않고 따를 의로운 충신이었다. 오보시 유라노스케에게는 자신의 운명이나, 가족들의 생계 같은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갈등이나, 고뇌는 찾아볼 수가 없다. 악인 고노 모로나오와 대척점에 서게 되는 오보시 유라노스케에게는 그래서 판단착오가 아니라, 주군의 유언을 무조건 준수하는 선한 역할이 주어진 것이다.

저마다 의견을 말하는 동안 유라노스케는 묵묵히 듣고 있다가 입을 열었다.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야고로의 생각이 나와 같다. 말하자면 돌아가신 주군을 위해 순사하는 것이 무사의 도리일 것이다. 하지만 어리석게 할복하는 것보다 아시카가의 무사들과 맞서 싸우다 죽기로 결정하였다.”²⁵⁾ (p.57)

うつぶせに。どうどまろび、息絶ゆれば。 (p.55)

24) 血に染まる切先を、うち守り守り。拳を握り。無念の涙はらへはらはら。判官の末期の一句、五臓六腑にしみわたり。さてこそ世末に大星が、忠臣、義心の名をあげし、限ざしは。かくと知られけり。 (p.56)

겐로쿠 사건에서 아사노 나가노리가 기라 요시나카에게 칼부림을 했던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²⁵⁾. 여러 가지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다. 그것은 두 사람 사이의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아사노 나가노리가 기라 요시나카에게 저지른 폭력을 합리화하기에 이유가 합당하지 못한 까닭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주신구라』는 철저히 주군의 원수를 갚는 47인의 무사들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까닭에, 기라 요시나카의 입장은 취급하지 않고 있다.

『주신구라』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은 고노 모로나오이다. 고노 모로나오는 엔야 한간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까닭에, 47인의 무사들로부터 멸문에 가까운 복수를 당한다. 고노 모로나오에게는 엔야 한간을 우습게보고 함부로 대한 판단착오가 있었다. 그러한 판단착오만 없었더라면, 결코 피해를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지만 『주신구라』에서는 고노 모로나오가 판단착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악인으로 설정되어 있다. 고노 모로나오는 선과 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엔야 한간에게 할복을 각오하고 복수 행위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악인이었다. 엔야 한간과 오보시 유라노스케를 비롯한 46인의 무사들이 선한 인물로 설정된 것처럼, 고노 모로나오는 악인으로 설정되어서 선과 악의 경계에서 갈등을 하거나, 자신의 악행에 대해서 고민하지도 않는다. 멜로드라마에 어울리는 악인일 뿐이다.

『주신구라』는 복수의 완결은 47인의 무사들이 고노 모로나오의 목을 베는 장면에서 절정을 이룬다. 오보시 유라노스케와 46인의 무사들이 복수를 결행한 날, 고노 모로나오는 향연을 즐기고 있었다. 복수는 고노 모로나오의 담을 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오보시 유라노스케는 뿔나무 창고에서 고노 모로나오를 찾아낸다. 그리고 고노 모로나오에게 주군 엔야 한간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찾아온 무례를 용서해달라며, 목을 내달라고 요청한다.

“여러분! 뿔나무 창고에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생포했습니다.” 라고 말하자 일동은 용기백배하였다.

유라노스케가 “아아, 잘했다! 큰 공이다! 그러나 쉽게 죽어진 말아라. 그래도 천하의 집사직에 있던 분이니 죽이는 데도 예법이 있다.”

모로나오를 상좌에 앉히고 “저희들 신하의 신분의 몸으로 저택에 들어와 이 같은 행패를 부린

25) 評議のうちに由良之助、默然としてゐたりしが。たゞいまの評定に。彌五郎の所存と。わが胸中一致せり。いよいよ亡君の御ために。われへ殉死すべきはず。むざむざと切腹らうより。足利の討手を待ち受け、討ち死にと一決せり。(p.58)

26) 겐로쿠 사건은 아사노와 기라 두 사람의 개인적 문제로 발생했다. 그 내용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이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기라가 아사노의 아내 아구리에 대해서 연모의 감정을 품어서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즈미 히데키(泉秀樹)(1998) 『忠臣蔵百科』講談社, p.49

것은 주군의 원수를 갚기 위함이고, 무례를 용서해 주시오. 순순히 당신의 목을 내주시오.” 라고 말하였다.

모로나오도 역시 만만찮은 인물, 기죽은 기색도 없이 “그렇군, 전부터 각오는 하고 있었다. 자 목을 쳐라.” 라고 방심하게 하고는 갑자기 칼을 뽑아 찔러 들어왔다.

<화> 몸을 돌려 피하면서 팔을 잡아 비틀어 올렸다.

“이런 불쌍한 반항. 여러분,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원한을 푸는 것은 지금이요.” 라고 유라노스케가 먼저 첫 칼로 베자, 마흔 여명이 하나같이 목소리를 모아 “눈먼 거북이가 물위에 뜬 나무를 만나고 삼천 년에 한번 핀다는 우담화를 보는 것처럼, 세상에 드물고 기쁜 일이다!” 라고 감격에 겨워 춤추며 기뻐 날뛰었다. 주군이 할복한 그 칼로 모로나오의 목을 떨어뜨렸다²⁷⁾. (pp.163-164)

문제는 47인의 무사들에게 의로운 성격이 부여되면서, 도리어 고노 모로나오가 판단 착오를 통해 비극적 결함을 일으켜서 비극적 결말에 이르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이다. 『주신구라』에서 비극적 결말을 맞는 인물은 고노 모로나오 밖에 없기 때문이다. 고노 모로나오를 처단하고 성취감에 들쭉이는 47인의 무사들이 맞이하는 결말은 불법 복수로 인해 막부로부터 내려진 집단 할복이 생략된 해피엔드이다.

“큰공이다. 큰 공을 세웠다.”

모두가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후세 후대까지 전해지는 이 의사(義士)들의 이야기. 이것이야말로 실로 천황의 치세가 계속되는 것처럼 길이 남을 것이다. 대나무 잎 문양의 다케모토 좌(竹本座)의 번영을 기원하면서 여기에 기록하는 바이다²⁸⁾. (p.167)

역설적이지만, 『주신구라』는 의로운 충신들의 승전담이 되었다. 따라서 『주신구라』에서 비극을 맞이하는 인물은 고노 모로나오이다. 고노 모로나오라는 악인의 비극은 터무니없게도 “비극적 공포와 연민”을 자아낸다. 고노 모로나오의 입장에서 보면, 연회를 진행 중이던 상황

27) コレコレいづれも。柴部屋に隠れしを見つけ出して、生け捕りにしと、聞くより、大ぜい花に露、いきいき勇んで由良之助。ヤレでかされた。手柄手柄。さりながら、うかつに殺すな。仮にも天下の執事職。殺すにも礼儀ありと。受け取つて上に据え。我我陪臣の身として。御館へ踏み込み、狼藉つかまつるも、主君の仇を報討じたさ。盧外のほど御許しくだされ。御尋常に御首をたまはるべしと、ある述べれば。師直もさすがのえせ者、悪びれもせず、オオもつとももつとも。覺悟はかねて。サア首を取れと、油断さして、抜き打ちにはつしと切る。ひつはづして腕捻ち上げ、ハア、しをらしき御手向ひ。サアいづれも。日ごろの鬱憤の時と、由良之助が初太刀にて、四十余人が声部に。浮木にあへる盲亀はこれ。三千年の優曇華の、花を見たりや。うれしやと。躍り上がり、飛び上がり、形見の刀で首かき落し。よろこび勇んで舞ふもあり。(p.158)

28) オ、手柄手柄と稱美の言葉、末世末代伝ふる義臣、これもひとえに君が代の、久しきためし竹の葉座の榮えを、ここに書き残す。(p.161)

에서 엔야 한간의 가신들의 집단 공격을 받았다. 그리고 제대로 저항도 못해보고 비극적 결말을 맞이한다.

물론 고노 모로나오의 비극은 자신이 우습게 여겼던 엔야 한간이 칼부림을 저지를 것이며, 가신들의 집단 복수가 일어나리라는 것을 예측하지 못한 판단착오에서 비롯되었다. 그것은 고노 모로나오의 비극적 결함이 되었다. 비극은 항상 자기 자신의 과오로 인해 비롯된다는 서구의 비극 이론에 빗대어 볼 때, 고노 모로나오가 맞이하는 비극은 확실히 자기 자신이 야기한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고노 모로나오는 비극적 사건 겐로쿠 사건을 반영한 47인의 무사들의 영웅담인 『주신구라』에서 유일하게 비극적 결말을 맞은 인물이다. 이것이 바로 서구 비극 이론으로 분석할 때 생겨나는 『주신구라』의 역설이다.

2.4 『주신구라』와 근대 국민교육

비극이었던 겐로쿠 사건은 난교조루리 『주신구라』로 각색되면서, 멜로드라마가 되었다. 멜로드라마의 가장 큰 특징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인물의 고정적 성격이다. 이러한 『주신구라』의 작중 주동인물들의 고정적 성격 부여는 겐로쿠 사건에 대한 오해를 야기한다. 『주신구라』의 작중 주동인물에 대한 친근감이 겐로쿠 사건에 대한 친근감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의식의 변화는 겐로쿠 사건이 막부도 발견하지 못한 악행을 저지른 악인을 의로운 47인의 무사들의 대신 처단한 의로운 행위라는 인식을 갖게 한다. 이것이 바로 비극이 멜로드라마로 전환되면서 생겨난 『주신구라』의 역설이다²⁹⁾.

『주신구라』의 역설은 서구식 근대화를 추구하던 일본 정부의 국민교육의 교재로 활용되었다. 사건 발생 당시, 막부에 의해 불법 폭력행위로 처벌받았던 겐로쿠 사건은 『주신구라』의 인기를 통해 확보된 사건에 대한 인식 전환과 황국 신민화를 통해 제국주의를 지향하던 일본 정부에 의해서, 주군에 대한 충의라는 주제를 강조하는 역사 사례로 활용된 것이다. 불법적인 사적 복수 행위가 제국주의를 지향하는 근대 일본 정부에 의해 주군에 대한 의리를 지킨 무사들의 충절로 포장된 것이다. 1922년 메이지 도쇼(明治圖書)에서 발행한 『국사 해설(國史解説, 下卷)』에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균형감을 상실한 내용이 처음으로 등장한다³⁰⁾.

29) 막부의 할복 처벌은 막번제의 질서와 무사의 충의가 타협을 짓는 유일한 해결책이었다. 『고반타이헤이키』는 목적을 이루고 할복한 오보시 이하 45인의 무사들에 대한 애처로운 마음을 더욱 강하게 갖게 하였다. 하지만 『고반타이헤이키』와 이후의 작품들은 무사들의 할복 장면을 생략하면서, 막부와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이준섭(2005) 『주신구라 - 47인 사무라이의 복수극』 살림, pp.22-23

30) 마스자와 키요시(増沢淑)(1922) 『尋常小学国史解説 下卷』明治図書, pp.135-154

요시오 등의 충절

겐로쿠 15년 겨울, 요시오는 동지 무사 46명과 함께 심야 눈을 밟고 요시나카의 집을 습격, 마침내 그를 죽였고, 머리를 나가노리의 무덤에 바쳐 제사를 드렸고, 곧이어 자수했다. 요시오가 가진 단도에는 “만산 무겁지 않아도 주군의 은혜는 무겁고, 한 올 머리카락 가볍지 않아도, 내 목숨은 가볍다.” 라고 새겨 있었다. 또한 요시오의 자식 요시카네는 겨우 15세였지만, 지혜와 용기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서, 일을 함께 했다. 쓰네요시 깊이 요시오 무리의 주군에 대한 충의를 힘을 다해 칭찬했다. 막부 안에서도 그 일을 돕기를 바랐지만, 또한 막부는 많은 사람이 무리를 모으는 것을 금지했기에, 부득이 사형을 내렸다. 이 일을 전해들은 요시오 등은 반응하지 않았고, 아코 의사의 명예는 몹시 높았다. 이후 오랫동안 사민의 의로운 마음을 권했다³¹⁾.

겐로쿠 사건의 불법성과 폭력성을 잘 알고 있는 일본 정부는 겐로쿠 사건 자체를 미화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겐로쿠 사건 자체를 미화하기보다는, 겐로쿠 사건을 야기한 오이시 요시오 개인에게 초점을 맞춰 충성심 강한 영웅으로 그려낸 것이다. 가나(仮名)로 쓰여진 모범(手本)적인 충신들의 이야기(忠臣蔵)라는 『가나데혼 주신구라』의 제목은 200여 년간의 흥행 성공으로 겐로쿠 사건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킨 것이다. 「오이시 요시오」를 중심으로 겐로쿠 사건을 소개하는 내용은 1932년³²⁾, 1935년³³⁾에 발간된 『심상소학 국사 해설』에 계속 수록되었다.

겐로쿠 사건에 대한 이러한 역설적 해석이 가능한 것은 ‘기리(義理)와 닌쥔(人情)’이라는 독법의 확산과 ‘약자 편들기(判官贔屓)’라는 논리구조가 정착되었기 때문이다. ‘기리와 닌쥔’의 갈등은 쓰보우치 소요(坪内逍遙)가 근세 문학의 이해 방식으로 내세운 이해방법이었³⁴⁾, ‘약자 편들기’는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제3자의 입장에서 약자 편을 들어주는 인간적 연민

31) 良雄等の忠節 元禄十五年の冬、良雄は同志の士四十六人と共に深夜雪をふみて義央邸を襲ひ、遂に之をころし、首を長矩の基にそなえて其主をまつり、ついで幕府に自首せり。良雄の持たる小刀には " 萬山重からず君恩重し、一髪輕からず、我が命輕し " ぞ彫りつけたりしぞ。又良雄の子良金は年僅かに十五歳なれど、智勇人にすぐれて、事を共にしたり。良雄等の其の主に忠義を盡したるを賞し、幕府のなかにも之を助けんぞ欲するもありしかど、かねてばくふは多くの人々が徒党を結ぶことを禁じたいば、やまなく死を賜へり。其の事を伝え聞くもの、良雄等の節義に感ぜざるはなく、赤穂義士のほまれ甚だ高く、此の後ながなが士民の義心を勵ましたりき。마스자와 키요시(増沢淑)(1922), 전게서, pp.137-138

32) 오마쓰 쇼타로(大松庄太郎)(1932)『尋常小学国史課程の新展開 尋5・6』明治図書, pp.283-290

33) 오쿠보 가오루(大久保馨)(1935)『尋常小学新国史指導書 下巻』明治図書, pp.217-250

34) 쓰보우치 소요(坪内逍遙)는 지카마쓰 문자에몬을 비롯해서, 근세 문학의 이해의 방식을 ‘기리와 닌쥔의 갈등’으로 요약했다. 메이지 20년 무렵, 쓰보우치 소요는 와세다 대학 출신자를 중심으로 지카마쓰 연구회(近松研究會)를 결성, ‘기리와 닌쥔의 갈등’에 대한 연구를 심화했다. 쓰보우치 소요의 ‘기리와 닌쥔의 갈등’ 방식은 근세 문학을 근대와 현대적 시각에서 이해한 방식이었고,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일본 근세에 대한 국문학, 국사학 연구의 방향을 정립하는데 초석이 되었다.

을 합리화하는 논리였다³⁵⁾. 비극이었던 겐로쿠 사건이 주군과의 의리를 지키는 무사들의 영웅담으로 변모하는 것이 바로 이때부터였다.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던 인물이 판단착오를 통한 비극적 결함으로 인해 비극적 결말에 이르는 것이 비극이고, 이러한 비극의 원칙에 들어맞는 것이 바로 겐로쿠 사건이었다. 그러나 『주신구라』의 성공으로 겐로쿠 사건은 복수의 완성으로 결론이 내려지면서, 기라는 처단해야 할 악인으로 인물의 성격이 규정되었고, 오이시 요시오는 악인을 처단하는 선한 인물로 성격이 고정된 것이다. 이러한 선악의 인물 규정과 복수의 완성을 위해서, ‘기리와 닌쥔의 갈등’이 사건의 골간을 이루게 되었고,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는 47인의 무사들에게는 ‘약자 편들기’라는 동정적 여론으로 불법 행위를 합리화시킨 것이다.

2.5 근대 국민교육과 겐로쿠 사건의 인식 전환

비극이었던 겐로쿠 사건이 멜로드라마인 『주신구라』로 전환하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다. 역사적 사건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적 분규를 악인과 선인의 갈등으로 풀이한 것이다. 기라 요시나카와 아사노 나가노리의 사적 분규는 결국 47명의 무사들 전체의 복수로 이어진 것을 합리화한다. 아사노 나가노리의 무사 47명이 기라 요시나카를 처단하기 위해 나선 것은 주군의 원수이며, 악인이기 때문이라는 등식이 성립된 것이다.

47명의 무사들의 복수극은 치밀하게 이루어졌다. 1년 10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치면서, 의리와 인정의 갈등을 겪기도 한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며 복수를 준비한다. 『주신구라』에서, 47명의 무사들이 복수를 하기 위해 찾아나서는 장면은 흡사 전쟁을 치르기 위해 떠나는 군인들의 모습을 연상시킨다³⁶⁾. 준비 없이 47명의 무사들의 기습을 당하는 고노 모로나오는 천재지변과 같은 재난을 당하는 격이다.

이런 일방적인 공격을 감행하는 47명의 무사들은 불법적인 집단 테러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주신구라』에서는 고노 모로나오가 처단되어야 할 악인으로 규정되어서, 47명의 무사들의 복수 행위가 자연스럽게 여겨진다. 엔야 한간에게 고노 모로나오가 저지른 악행 때문이었다. 47명의 무사들에게 기습을 당한 고노 모로나오는 죽기 직전까지 비겁한 인물로 그려진다.

그러나 『주신구라』에서는, 엔야 한간의 하극상, 사적 복수를 위한 갈부림 같은 부분의 문제점은 전혀 지적되지 않고 있다. 고노 모로나오를 처단해야 할 인물로 규정하면서, 엔야 한간에

35) ‘약자 편들기’는 약자에 대한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원수를 갚고, 복수를 이루고, 자신들은 소멸하는 이들에 대한 정서적 동조이다. 스와 하루오(諏訪春雄)(1986) 『忠臣藏の深層』學燈社, p.28

36) 高野澄(1999) 『忠臣藏とは何だろうか』日本放送出版協會, pp.169-171

게 불리한 모습은 제거된 것이다. 행사를 총괄하는 관리에게 꾸지람을 들었다고 반기를 든 아랫사람이 칼부림을 하는 것이나, 그 칼부림의 대가로 할복을 당했다고 47명의 무사들이 집단으로 찾아가서 기습을 상대의 목을 떼어내는 것이나, 모두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들이다.

그런데 그러한 행동의 결말은 항상 상식적이었다. 당시 막부는 엔야 한간으로 묘사된 아사노 나가노리와 오보시 유라노스케로 각색된 오이시 요시오 등의 47명의 무사들에게 할복 명령을 내렸다. 무사들의 행동이 법치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겐로쿠 사건 이후, 겐로쿠 사건과 관련한 논란이나, 연극 상연을 금지한 것도 바로 법치 사회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여지 때문이었다.

『주신구라』에서, 할복장면이 생략된 것은 겐로쿠 사건에 대한 암시성을 제거하기 위한 의도였다. 역사적 사실인 겐로쿠 사건을 모두 아는 일본인들에게는 그것이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그렇지만 할복 장면이 생략되기 위해서 필요한 고노 모로나오의 악인화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을 불러온다. 연극 안에서 반드시 죽어야 할 인물로 묘사된 고노 모로나오의 처단이라는 결말은 막부가 찾아내지 못한 고노 모로나오의 악행을 47인의 무사들이 목숨을 걸고 처벌한다는 느낌이 들게 만들기 때문이다. 47명의 무사들이 복수 행위를 저지른 것은 불법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주신구라』를 관람하는 관객들은 47인의 무사들이 목숨을 건 의로운 행위를 한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

47인 무사들의 맞는 할복 장면의 생략은 서구 비극의 전형인 『오이디푸스(Oedipus)』에서 비극적 종말에 이른 장면을 생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아버지 라이오스를 죽이고, 어머니 이오키타스를 죽인 오이디푸스가 두 눈을 빼고 방랑길에 올랐다가, 코로노스 성립에서 죽음을 맞는 비극적 장면을 제거한다면, 『오이디푸스(Oedipus)』는 비극이 될 수 없다³⁷⁾. 자신의 왕위 보존을 위해 자식도 버린 악한 아버지를 죽이고, 그 보상으로 어머니를 아내로 맞는 고아 소년의 연애담이 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비극이었던 겐로쿠 사건은 『주신구라』를 통해 멜로드라마로 전환되었다. 비극적 결말의 제거를 위해, 등장인물들의 성격을 고정했기 때문이었다. 비극의 비장미로 세인들의 관심을 끌었던 겐로쿠 사건은 『주신구라』를 통해, 역사 영웅극으로 전환되었다. 『주신구라』의 핵심은 당시의 막부도 인정한 사적 집단복수인데도, 관객들은 불법 복수행위라는 생각을 연극이 끝날 때까지 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러한 『주신구라』를 통한 겐로쿠 사건의 인식 전환은 근대 일본의 제국주의적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게 되었다. 일본 제국주의는 겐로쿠 사건을 통해, 무사들의 충절을 일본

37) P.E.Easterling(1997)『Greek Tragedy』Cambridge University Press, pp.10-35

국민들이 본받아야 할 수양의 도구라고 교육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이러한 교육 내용은 점점 심화되었다³⁸⁾.

그러나 문제는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진 일본의 제국주의 형성에 기여한 겐로쿠 사건 관련 내용이 현대 일본 국민교육에서도 여전히 취급되어진다는 사실이다. 겐로쿠 사건과 『주신구라』는 여전히 일본 고등학교 국어와 국사 과목에서 다뤄지고 있다. 역사적 사실 겐로쿠 사건은 국사 교과서에서, 겐로쿠 사건을 소재로 한 『주신구라』는 문예 교과서에서 소개되고 있는 것이다³⁹⁾. 일본의 고등학교 모든 문학교과서에서 『주신구라』는 문예작품으로 취급되고 있다.

문예작품 『주신구라』는 일본 국민교육의 소재가 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주신구라』의 성공으로 역사적 사실과 다르게 주제가 변모된 겐로쿠 사건이 일본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 소개되거나, 언급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주신구라』가 성공을 했다고 해도, 겐로쿠 사건의 불법성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겐로쿠 사건은 사건 발생 당시 막부에 의해서 무사 전원에게 할복 명령이 내려진 불법 폭력행위였고, 그러한 평가는 현재까지도 유효하기 때문이다. 겐로쿠 사건에 대한 역사적 판단과 『주신구라』에 대한 예술적 평가의 혼동 상태가 바로 현재 일본 역사 교과서의 현실이다⁴⁰⁾.

3. 結 論

『주신구라』에서 복수에 성공한 무사들의 할복 장면이 생략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무사들의 할복 장면 생략은 극을 구상할 때부터 이미 설정된 상황이었다. 무사들이 복수를 완결하는 것으로 극을 마치기 위해, 작가들은 극 전체를 통해서 고노 모로나오를 처단해야

38) 오이시 요시오(大石良雄)이 주군봉공의 의인을 처음 소개된 근대 시대의 저작물은 1875년 간행된『四海波靜』은 출판사와 저자가 불명확하지만, 近代デジタルライブラリー(<http://kindai.ndl.go.jp/>)에 전문이 수록되어 있다. 이후, 1870~1879(6편), 1880~1889(24편), 1890~1899(38편), 1900~1909(41편), 1910~1919(66편), 1920~1929(47편), 1930~1939(39편), 1940~1949(8편)이 발표되었다. 연대가 불확실 한 것을 포함하면, 전체 271편이 발표된 것이다. 이 가운데 특히 일본 역사서에 수록된 것은 34권이다. 이러한 오이시 요시오의 영웅화는 일본 국사 교과서 수록으로 이어지고, 겐로쿠 사건 자체에 대한 미화로 연결되었다.

39)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겐로쿠 사건은 3가지 방식으로 취급된다. 첫째는 상세 기술, 두 번째는 단순 소개, 세 번째는 무언급 방식이다. 무언급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연표 등에 소개되는 경우가 일부 있고, 상세 기술 하는 국가 교과서도 있다.

40) 일본에서는 겐로쿠 사건을 주신구라 사건으로 혼용하고 있다. 최관(2001), 전게서, p.186 역사적 사실을 문예작품의 제목과 혼용하는 것은 주신구라의 주제의식과 결론을 역사적 사실 겐로쿠 사건으로 받아들이 일 우려가 크다.

할 악인으로 규정하는 작업을 했던 것이다.

그런 까닭에 『주신구라』는 작중 주동인물인 오보시 유라노스케와 46인의 무사는 물론, 주군 엔야 한간까지 악한 인물에 대한 하는 선한 인물로 성격이 규정되었다. 따라서 『주신구라』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는 인물이 자신의 판단착오로 인해 비극적 결함을 갖게 되어, 비극적 결말에 이르는 비극이 되지 못한다. 결국 역사적 사실 겐로쿠 사건과 다르게, 『주신구라』는 비극이 아닌 멜로드라마가 되어버린다.

『주신구라』에서 할복 장면이 생략된 것은 대수롭지 않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겐로쿠 사건에 대한 이해 자체를 바꿔버리는 역사 왜곡 현상을 초래한다. 『주신구라』는 악인을 사적으로 복수하는 것이 합당한 일처럼 오해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결국 200여 년에 걸친 문예작품 『주신구라』의 대성공은 역사적 사실인 겐로쿠 사건에 대한 터무니없는 해석을 만들어냈고, 국민교육을 실시한 근대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현대에 이르기까지 지난 100년 간 국민들이 배워야 할 교육 내용으로 수록되었다.

『주신구라』가 비극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와 겐로쿠 사건이 주신구라 사건으로 불리는 것은 일본인들에게는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일본인들에게 『주신구라』는 역사적 사실 겐로쿠 사건을 소재로 한 연극일 뿐이기 때문이다. 복수를 한 무사들이 전부 할복으로 죽었다는 역사적 결말을 알고 있는 까닭에, 『주신구라』에서 무사들이 할복을 하지 않은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할복 장면이 생략된 『주신구라』는 무사들의 복수가 정당한 행위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든다. 역사적 사실로서 겐로쿠 사건은 불법 행위로 인해 막부에 의해 무사들이 할복 명령을 받아 실행한 비극이었다. 따라서 겐로쿠 사건을 소재로 한 『주신구라』 역시 이러한 전개 과정을 통해서, 비극적 결말을 맞이하는 무사들의 비극성을 소개해야 한다. 그래야 관객들은 겐로쿠 사건에서 느끼는 “비극적 공포와 연민”을 『주신구라』에서 재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멜로드라마가 된 『주신구라』는 역사적 사실 겐로쿠 사건에서 “비극적 공포와 연민”을 느끼는 대신, 처단해야 할 원수를 양값음한 복수극의 통쾌함만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죽어 마땅한 대적을 처단한 47인의 무사들은 불법적인 사적 복수를 저지른 범죄자가 아니라, 주군과의 의리를 지킨 영웅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문예작품을 통한 역사 왜곡이라고 말할 수 있다.

복수극을 주도한 오이시 요시오가 국민적 영웅으로 근대 일본의 교과서에 소개된 것이나, 일본의 역사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 사건이 아닌 불법 테러행위를 현대 일본 국사 교과서에서 소개하는 것은 일본의 국민교육의 방향성에 의문을 갖게 만드는 상황이다. 겐로쿠 사건

의 국사 교과서 소개가 주변국과의 마찰을 빚고 있는 일본 국사 교과서의 문제점의 시발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하지만 겐로쿠 사건과 무사들의 할복 장면이 생략된 『주신구라』가 동일한 감동을 주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다.

【參考文獻】

- 이성민(2012년)『가나데혼 주신구라의 비극성』 한국학술정보, p.170
 이준섭(2005)『주신구라 - 47인 사무라이의 복수극』 살림, pp.22-23
 최 관(2001)『주신구라』 민음사, pp.15-167
 泉秀樹(1998)『忠臣蔵百科』 講談社, p.49
 大久保馨(1935)『尋常小学新国史指導書. 下巻』明治図書, pp.217-250
 大松庄太郎(1932)『尋常小学国史課程の新展開. 尋5・6』明治図書, pp.283-290
 菊地明(2002)『圖解雑學 忠臣蔵』 ナツメ社, p.60
 高野澄(1999)『忠臣蔵とは何だろうか』日本放送出版協會, pp.169-171
 元禄忠臣蔵の会(1999)『元禄忠臣蔵データファイル』新人物往來社, pp.177-230
 小堀桂一郎, 村松 剛 外 10名(1994)『最新日本史』 國書刊行會, p.129
 諏訪春雄(1986)『忠臣蔵の深層』學灯社, p.28
 鳥越文蔵(2002)『浄瑠璃集 新編 日本古典文學全集77』 小學館, pp.42-161
 中江克己(1999)『忠臣蔵と元禄時代』中公文庫, pp.182-187
 濱だ恂子(1986)『二つの忠臣蔵』未知谷, pp.65-110
 増沢淑(1922)『尋常小学国史解説 下巻』明治図書, pp.135-154
 緑川亨(1983)『日本古典文學大事典 卷2』岩波書店, p.655
 Brain Vickers(1973)『Towards Greek Tragedy』Longman Group Limited, pp.3-52
 Charles Segal(1981)『Tragedy and Civilization : An Interpretation of Sophocles』 Harvard University Press, pp.2-4
 Christian Meier(1988)『The Political Art of Greek Tragedy』Polity Press, p.4
 P.E.Easterling(1997)『Greek Tragedy』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10-35
 Robert W. Corrigan(1981)『Tragedy Vision and Form』 Happer&Row, p.70, p.120, p.206
 近代デジタルライブラリー(<http://kindai.ndl.go.jp/>)

논문투고일 : 2013년 06월 10일
 심사개시일 : 2013년 06월 20일
 1차 수정일 : 2013년 07월 09일
 2차 수정일 : 2013년 07월 16일
 게재확정일 : 2013년 07월 21일

〈要旨〉

비극성의 상실과 역사 왜곡

- 겐로쿠 사건과 『가나데혼 주신구라』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

『주신구라』에서 복수에 성공한 무사들의 할복 장면이 생략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무사들의 할복 장면 생략은 극을 구상할 때부터 이미 설정된 상황이었다. 무사들이 복수를 완결하는 것으로 극을 마치기 위해, 작가들은 극 전체를 통해서 고노 모로나오를 처단해야 할 악인으로 규정하는 작업을 했던 것이다. 따라서 『주신구라』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는 인물이 자신의 판단착오로 인해 비극적 결말을 갖게 되어, 비극적 결말에 이르는 비극이 되지 못한다. 결국 역사적 사실 겐로쿠 사건과 다르게, 『주신구라』는 비극이 아닌 멜로드라마가 되어버린다.

『주신구라』에서 할복 장면이 생략된 것은 대수롭지 않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겐로쿠 사건에 대한 이해 자체를 바꿔버리는 역사 왜곡 현상을 초래한다. 『주신구라』는 악인을 사적으로 복수하는 것이 합당한 일처럼 오해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주신구라』가 비극이나, 아니나 하는 문제와 겐로쿠 사건이 주신구라 사건으로 불리는 것은 일본인들에게는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일본인들에게 『주신구라』는 역사적 사실 겐로쿠 사건을 소재로 한 연극일 뿐이기 때문이다. 복수를 한 무사들이 전부 할복으로 죽었다는 역사적 결말을 알고 있는 까닭에, 『주신구라』에서 무사들이 할복을 하지 않은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복수극을 주도한 오ishi 요시오가 국민적 영웅으로 근대 일본의 교과서에 소개된 것이나, 일본의 역사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 사건이 아닌 불법 테러행위를 현대 일본 국사 교과서에서 소개하는 것은 일본의 국민교육의 방향성에 의문을 갖게 만드는 상황이다. 겐로쿠 사건과 무사들의 할복 장면이 생략된 『주신구라』가 동일한 감동을 주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다.

Elimination of tragic end and distortion of history

- Focused on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incident Genroku and 『Ganadehoh Chusingura』 -

It is not coincident that disembowelment scene of the revenge success samurai was omitted in 『Ganadehon Chushingura』. It was already set when the writers envisioned the work. To finish the work with success of revenge, the writers made Kono Moronao as the bad man to be punished. Thus Obosi Uranoske and 46 samurais, as well as the Lord Enya Hangan became the good men to be contested. So 『Ganadehon Chushingura』 could not be tragedy. Tragedy have tragic end that were made by the man not good, not bad who made mistake in decision making. Finally 『Ganadehon Chushingura』 became melodrama, not tragedy. It seems that omission of disembowelment is trivial but it is important. Because it makes distortion of history. The incident Genroku was tragedy, but 『Ganadehon Chushingura』 was heroic exploits of revenge against bad man in privately. So Oishi Yoshio became a national hero who led revenge in modern Japan, and was introduced in the textbook. Because of the success of 『Ganadehon Chushingura』 and introduce in text books, Japanese people has had a positive impact on the incident Genroku, not terrorism but expression of royalty towards the Lord. It is hard to affirm that the introduction of incident Genroku could be the starting point of distortion of history, but could be said in the extension. The omission of the disembowelment scene of 『Ganadehon Chushingura』 made criminals as heroes.